

20주년을 맞이한 가즈프롬의 불투명한 미래

작성자 : 이유신 (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)

작성일 : 2013년 6월 5일

■ 20주년을 맞이한 가즈프롬의 위상 추락

- 지난 2월 가즈프롬의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림.
 - 주지하듯이 가즈프롬의 전신은 소련방 가스산업부(USSR Ministry of the Gas Industry)임.
 - 20주년을 맞이한 가즈프롬은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로 자국 가스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생산하고 있음.
 - 그리고 가즈프롬의 시가총액은 지난 2008년 5월 3,690억 달러에 달했음.
 - 당시 가즈프롬은 시가총액 규모로 전 세계에서 5위 안에 드는 기업이었음.
-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가즈프롬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했음.
 - 가즈프롬의 현재 시가총액은 1,0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(참고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의 현재 시가총액은 4,0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음).
 - 가즈프롬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하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순이익의 감소임.
- 이로 인해 가즈프롬의 20주년 기념식은 특별히 축하할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도됨.

■ 가즈프롬의 순이익이 감소하게 된 원인

- 가즈프롬의 순이익이 매년 감소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미국에서 발생한 셰일가스(shale gas)의 혁명임.
 - 미국의 가스 생산량은 셰일가스의 생산에 힘입어 지난 2009년 러시아의 가스 생산량을 추월했음.
 - 이후 미국은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스를 생산하고 있음.
 - 이 과정에서 미국의 가스 수입량은 감소했고 이로 인해 미국이 매입하기로 계약했던 LNG가 유럽시장으로 재수출됨.
 - 이렇게 유럽으로 유입된 가스는 가즈프롬의 주력 시장인 유럽에서의 가스 가격 하락으로 이어짐.
 - 이 가스 가격의 하락은 현물시장에서 발생했고 이 가격은 러시아가 유럽으로 수출하는 장기계약 가스 가격보다 저렴해졌음(참고로 장기계약 가스가격은 통상적으로 현물 가스가격보다 저렴함).

-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유럽 국가들은 현물시장에서 가스를 매입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유럽시장에서 가스프롬의 매출량은 감소했음.
- 유럽 현물 가스시장에서의 가격 하락은 또한 가스프롬이 유럽으로 수출하는 가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침.
- 특히 유럽의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수입되는 가스 가격의 하락을 끈질기게 요구
- 그리고 러시아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
- 이로 인해 여러 유럽 국가들은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스를 매입할 수 있게 됨.
- 이러한 변화는 가스프롬의 순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.
-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2012년 가스프롬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11퍼센트 감소했음.

■ 가스프롬의 불투명한 미래

- 여러 전문가들은 가스프롬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.
- 우선 러시아의 주력 시장인 유럽의 가스 수요는 경제위기로 인해 당분간 정체될 것으로 기대
- 여기에 더해 미국의 지위가 이른 시일 안에 가스 순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전환될 예정
- 이러한 변화는 유럽 가스시장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공을 들이고 있는 아시아 가스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음.
- 지난 5월 미국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가스를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
- 이로써 미국은 한국과 인도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도 가스를 수출할 예정
- 이러한 변화들은 아시아 가스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가스프롬의 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.

※ 참고자료

- Anders Aslund, "Gazprom Crisis Casts Shadow Over Putin," *Financial Times* (September 27, 2012).
- Halia Pavliva and Stephen Bierman, "Gazprom Sinks Below \$100 Billiob For First Time Since '09," *Bloomberg* (April 3, 2013).
- Mari Iwata, "Japanese LNG Buyers See U.S. Decision Boosting Spot Market Chances," *The Wall Street Journal* (May 20, 2013).
- Tom Balmforth, "At 20, Russia's Gazprom Struggles to Stay Dominant," *RFE/RL* (May 20, 2013).